

프로농구 출범 23년만에 첫 시즌 조기 종료

이사회서 남은 일정 취소 결정 서울 SK·원주 DB 공동 1위 실내 프로스포츠 모두 시즌 종료

프로농구가 1997년 출범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즌을 도중에 종료했다.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24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25기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잔여 경기와 플레이오프까지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프로농구는 1997년 출범 이후 24번째 시즌 만에 처음으로 시즌을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종료하게 됐다.

KBL은 1일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정규리그 진행을 중단했고, 29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사회를 통해 남은 일정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정규리그가 중단된 2월 29일까지 28승 15패로 공동 1위를 달린 서울 SK와 원주 DB가 그대로 공동 1위로 정규리그를 마치는 것으로 결정됐다. 3위는 26승 17패의 안양 KGC인삼공사다.

KBL은 20일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23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이어 국내 4대 프로스



KBL 이장대 총재가 24일 오전 강남구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KBL은 이날 이사회에서 프로농구 정규리그 재개 여부와 후속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포츠(야구·축구·농구·배구) 사상 세 번째로 시즌 조기 종료를 선언한 경기 단체가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농구와 배구, 핸드볼과 아이스하키 등 국내에서 진행된 2019-2020시즌 종목들은 모두 시즌을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했다.

SK핸드볼 코리아리그와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는 이미 2월에 시즌 조기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다. 시즌 조기 종료 결정에 따라 2020년 신인 드래프트 추천 순위의 경우 정규리그 7~10위는 각 16%, 5위와 6위는 각 12%씩 1순위 추천 확률을 갖고 3위와 4위는 각 5%, 공동 1위 팀은 각 1%씩 갖기로 했다.

또 정규경기와 플레이오프 우승 상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각 구단 협력업체 종사자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KBL은 시즌 정상 종료일을 고려해 심판, 경기원, 판독관, 분석관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규경기 시상식은 개최하지 않고 해당 부문에 대한 시상은 별도로 진행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국내 4대 프로스포츠 리그 일정
3월 24일 기준

- K리그1 (프로축구)**
무기한 연기
- KBO리그 (프로야구)**
4월 20일 이후로 개막 연기
- KBL (남자프로농구)**
시즌 조기 종료 (24일 결정)
- WKBL (여자프로농구)**
시즌 조기 종료 (20일 결정)
- V리그 (프로배구)**
시즌 조기 종료 (23일 결정)

*이외 SK핸드볼 코리아리그와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 지난 2월 시즌 조기 종료 결정 /연합뉴스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 전남 485곳 선정

경기·경남 이어 전국 세번째

전남도가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신나는 주말학교) 선정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24일 전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에 따르면 2020년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신나는 주말체육학교)에 전남에서 학교안은 345곳, 학교밖은 140곳 등 모두 485곳이 선정됐다.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은 대한체육회가 학생 대상 주말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다.

전국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56개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경남이 522개, 전남이 485개로 나타나 전국 3위였다.

전남의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 부분별로는 학교안은 총 345개로 초등이 199개, 중등이 94개, 고등이 46개, 특수학교가 6개다.

학교밖은 140개로 공공민간이 92개, 공공스포츠 클럽이 48개다.

전국적으로 학교안은 총 3434개 가운데 경기도가 429개로 가장 많고 경남이 380개, 전남이 345개, 부산 273개, 서울 244개, 대구 236개, 충남 218개, 경북 207개, 전북 153개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밖은 모두 1483개로 전북이 155개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경남 142개, 전남 140개, 경기 127개, 경북 117개, 서울 115개, 부산 110개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엘리트 선수 육성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연합뉴스

캐나다 이어 호주도 올림픽 "불참"…1년후 개최 유력

노르웨이·브라질 등 연기 요구 잇따라

올해 7월 열릴 예정이던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1년 후인 2021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연기를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앞으로 4주 안에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3일(한국시간)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불인'이 완전히 해제됐다.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곧바로 IOC와 보조를 맞춰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고, 캐나다와 호주는 선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고자 올해 도쿄올림픽에 선수를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수면 위로 막 부상한 올림픽 연기론에 불을 붙인 것으로 여전한 올림픽 연내 개최에 미련을 못 버린 IOC의 신속한 결정을 압박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는 처음으로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패럴림픽에 불참하겠다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캐나다의 발표에 이어 호주올림픽위원회도 자국 선수들에게 "2021년 여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올림픽위원회는 "올해 7월에 올림픽을 예정대로 열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선수들에게 아예 내년 여름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달했다.

호주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나라 안팎의

급변하는 환경에선 올림픽에 내보낼 호주 선수단을 구성하지 않는다"라며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두 나라의 행보와 각국 NOC, 종목별 국제연맹(IF), 발원권이 큰 유럽·미국의 종목 연맹·협회의 거듭된 연기 요청에 주목한 AP통신은 "도쿄올림픽이 2020년이 아닌 2021년에 열릴 게 유력해졌다"고 기사 제목을 달았다.

세계육상연맹은 코로나19가 강타한 유럽과 미국 지역 선수들의 훈련 부족 등을 명분 삼아 IOC에 "올해 7월 도쿄올림픽은 실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IF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연기를 요청했다.

노르웨이올림픽위원회는 21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도쿄올림픽 개최를 미루자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IOC에 발송했다.

브라질올림픽위원회도 같은 날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주장했고, 슬로베니아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콜롬비아올림픽위원장도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 우려, 공평한 출전 기회 박탈 등을 이유로 올림픽 연기 주장에 힘을 보탰다.

유럽에서 코로나19로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온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블랑코 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선수들이 훈련 부족으로 올림픽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도쿄올림픽을 미루지 않으면 불공정한 처사라고 힘줘 말했다.

미국육상협회와 수영연맹, 영국육상연맹 등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이 걸린 육상과 수영 강국의 종목 단체도 지금 이 상태로는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없다며 IOC에 올림픽 연기를 요구했다.

도쿄조직위와 IOC는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기 시점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강구할 예정이나 선수들과 NOC, IF의 시선은 2021년 개최로 향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극복 기원 '변의 경기' 바둑리그 다음달 올스타전 개최

스타 기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바둑계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변의 경기'에 나선다.

한국기원은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올스타전을 내달 10일부터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스타전에는 KB바둑리그를 대표하는 기사 10명이 출전해 '극복팀'과 '기원팀'으로 나뉘 승부를 정한다.

2019-2020시즌 우승팀 한국물가정보의 신민준 9단을 비롯해 셀트리온의 신진서 9단, 포스코케미칼 변상일 9단, 흥앤쇼핑 이영구 9단, 수려한합천 박영훈 9단, 화성시스코리요 박정환 9단, 사이버오로 나현 9단, 정관장황진단 이동훈 9단 등 8개 팀 주장이 나선다.

Kixx 주장 김지석 9단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며 2장인 윤준상 9단에게 출전권을 넘겼다.

바둑리그의 유일한 여자 기사인 셀트리온의 최정 9단도 올스타로 선정됐다.

우승팀인 한국물가정보의 한종진 감독과 준우승팀 셀트리온의 백대현 감독이 양 팀 감독을 맡았다.

팀은 27일 오후 2시 서울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선수 선발식에서 구성한다.

바둑리그 올스타전은 2017년과 2016·2017년을 이어 이번에 네 번째로 열린다.

기존에는 단판 승부로 승패를 가렸지만, 이번에는 연승전 방식으로 최소 5대국, 최대 9대국으로 이어진다.

첫 대국은 4월 10일 열리고, 11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7시 개최된다. 매 대국은 바둑TV에서 생중계한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40초 초읽기 3회다.

우승 상금은 1000만원이며, 상금과 별도로 매 대국 80만원의 대국료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유럽 챔스·유로파리그 결승전 무기한 연기

유럽축구연맹(UEFA)이 유럽 전역을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월에 예정됐던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UEFA는 2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오는 5월에 치르기로 했던 유럽클럽대항전의 결승전 날짜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UEFA는 "새로운 결승전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정 조정을 시작했다"라며 "조만간 새로운 결승전 날짜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UEFA 챔피언스리그는 8강과 준결승을 단판으로 치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BBC는 또 "UEFA 챔피언스리그는 아직 16강 일정도 다 끝나지 않은 만큼 1차전 결과만 가지고 8강 진출팀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라며 "8강 전 홈경기 장소는 동전 던지기로 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훈련은 계속되지만... 2020도쿄올림픽의 개최가 불투명해진 24일 충북 충주시 탄금초 조정경기장에서 한국 여자조정대표팀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인비저블맨,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3관	월드 워 Z
4관	주디
5관	사랑하고 있습니까
9관	1917, 다크 워터스
7관 씨네커를	1917, 미드나잇 인 파리, 스타 이즈 본
8관 씨네커를	정직한 후보, 작은 아씨들, 세인트 이가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동화음악회

GAC 기획공연-FOCUS
동화음악회<책으로 동을 묶는 돼지>
4. 7.(화) 11:00, 14: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엠마뉴엘 체코노리안 바이올린 리사이틀

GAC 기획공연-FOCUS
엠마뉴엘 체코노리안 바이올린 리사이틀
4. 9.(목)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화양영화: 강남구 초대전

GAC 기획전시
화양영화: 강남구 초대전
3. 27.(금) ~ 5. 10.(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